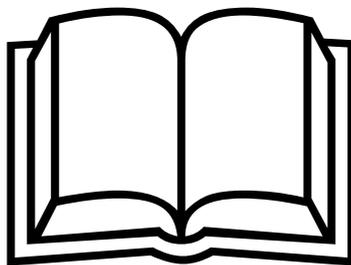


- 제4차 -

총만국

실전 모의고사

80분



[1~2]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프로젝트 영상을 보여주며) 여러분, 몇 년 전에 상영된 ‘해적’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우리나라에서는 해적들이 등장하는 영화가 드물어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역시 보신 분들이 많군요. 조선의 사신이 중국 황제로부터 받은 옥새를 잃어버리자 여러 인물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찾아 나선다는 게 이 영화의 설정이었죠. 옥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그렇게까지 애쓰며 찾으려 한 걸까요?

이번 시간에 제가 발표할 내용은 바로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옥새’에 관한 것입니다. 발표 전에 제가 나눠 드린 활동지를 한번 보시죠. 거기에 관련 사진들도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발표 내용을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의 도장으로서 옥으로 제작한 것을 옥새, 금으로 제작한 것을 금보 혹은 금인이라 하였습니다. 진시황 때 옥으로 황제의 권위를 보여 주는 도장을 새긴 것이 옥새의 시작이었는데, 이후 금으로 만든 금보도 그냥 옥새로 통칭해서 불렀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자, 이것은 국립 고궁 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시대 왕의 옥새인데요, 손잡이 부분이 거북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북은 십장생의 하나로 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을 보여주며) 옥새에 새겨진 이와 같은 문자를 ‘인문’이라고 합니다. 자, 옥새에 새겨진 글자를 한번 읽어 볼까요.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네. 한자인데다 글자체가 독특해서 읽기 어려우시죠? 이것은 바로 ‘조선국왕지인’이라고 새긴 겁니다.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들이 이성계에게 옥새를 가져다 바치면서 왕이 되어 달라고 간청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옥새가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또 옥새를 왕위 계승의 징표로 삼았다고 하니, 당시 사람들이 옥새에 부여한 상징적 의미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후대로 내려올수록 옥새를 찍어야 할 일이 많아지면서 그 용도에 따라 여러 개의 옥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궁 박물관 학예 연구사의 설명에 의하면, 주로 대 중국 관계의 외교문서에는 중국 황제가 보내 준 ‘국인’ 또는 ‘대보’를 사용했고, 왕명으로 작성되는 국내 문서에는 국내에서 제작한 ‘어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도 옥새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왕은 없지만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도장을 찍을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옥새 대신 ‘대한민국지새’라는 한자 인문을 새긴 ‘국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몇 번 새롭게 제작하는 과정에서 국새 인문을 한글 ‘대한민국’으로 바꾸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보시는 이 국새가 201년에 새롭게 제작한 현행 대한민국 국새입니다. 자, 손잡이 부분이 아까 보신 옥새와 달리 상서로운 새, 봉황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보이시죠? 이 국새는 주로 헌법 공포문, 외교사절 임명장, 중요 외교문서 등에 찍는다고 합니다. 이제 옥새에 대해 많이 아시게 되셨죠? 그럼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 학생의 발표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야겠어.
- ②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발표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고 있군.
- ③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에 대해 신뢰를 가지게 하고 있군.
- ④ 청중을 칭찬하는 말로 발표를 시작하여 청중과 긍정적인 유대감을 쌓고 있군.
- ⑤ 청중의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군.

2. 다음은 발표를 들으면서 활동지에 메모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옥새>

- 진시황 때부터 옥으로 만든 옥새 사용㉠
- 황제의 권위 상징, 왕위를 계승했다는 상징적 의미㉡
- 여러 개의 옥새 사용
 - 대 중국 관계 외교문서 : 국인, 대보 사용㉢
 - 국내 문서 : 중국 황제에게 받은 어보 사용㉣

<국새>

- 국새 손잡이는 봉황 모양
 - 봉황 : 상서로운 새
- 국새 사용
 - 헌법 공포문, 외교사절 임명장, 중요 외교문서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3~7] (가)는 학생들이 전문가를 찾아 인터뷰한 내용이고, (나)는 이를 참고하여 '학생 1'이 쓴 보고서의 초고이며, (다)는 (나)를 보충하는 신문 기사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안녕하세요? 선생님. 탄산음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탄산음료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 탄산음료는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여 만든, 맛이 산뜻하고 시원한 음료이지요. 즉 사이다, 콜라, 소다수 등을 말합니다. [A]

학생 2: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청량음료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청량음료는 탄산음료와 같은 말인가요? [B]

전문가: 네,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청량음료라고 하는 것은 탄산 음료의 맛을 강조한 것이지요.

학생 2: _____ ①

전문가: 인류는 처음에는 자연 그대로의 탄산수를 즐겼지요. 17세기에 이르러서야 탄산수에 꿀이나 레몬을 첨가해서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 1767년에 영국의 조셉 프리슬리가 최초의 인공 탄산수를 개발했어요. 미국의 필립 박사는 1807년에 환자들이 마시기 편하도록 약으로 먹는 탄산수에 향을 첨가했고, 이를 다른 외과 의사들도 따라 했다고 합니다. [B]

학생 1: 환자들이 마셨다고요? 그럼, 탄산음료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요? [C]

전문가: 아, 그건 약으로 먹는 것으로 요즘의 탄산음료와는 다른 것이지요.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탄산음료는 쓴 가격으로 청량한 맛을 느끼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되고 있어요. 천연 재료보다는 인공 첨가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C]

학생 1: 탄산음료를 먹으면 안 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D]

전문가: 탄산음료는 대표적인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과잉 섭취하게 되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요.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어린이는 탄산음료 섭취를 되도록 자제해야 합니다. [D]

학생 2: 저는 탄산음료를 하루에 두 캔 이상 마시는 편인데, 그래서 비만인가 봐요. 비만 이외에 건강에 다른 나쁜 점은 없나요? [E]

전문가: 탄산음료의 강한 산성은 치아를 부식시키고,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뼈를 약하게 하고,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정한 약품 섭취를 방해하기도 하지요.

학생 1: 나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아, 그래서 학교 매점에서는 탄산음료를 팔지 못하게 했나 봐요. 끝으로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탄산음료를 마시면 시원한 느낌이 들지만 그건 순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차가운 물이 시원한 느낌을 더 오래 가게 합니다.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습관을 길러 건강을 지킵시다. [E]

학생 1, 2: 네, 감사합니다.

(나)

<주제> 탄산음료의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목적> 평소에 자주 마시는 탄산음료의 개념과 역사, 탄산음료

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무심코 탄산음료를 마시는 관습을 고쳐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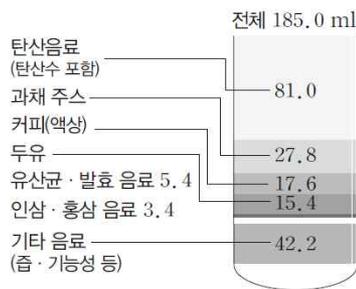
- **탄산음료의 개념:** 탄산음료는 이산화 탄소를 물에 녹여 만든, 맛이 산뜻하고 시원한 음료를 말하며 청량음료라고도 불린다.
- **탄산음료의 역사:** 자연 그대로의 탄산수를 즐기던 인류는 17세기에 이르러 탄산수에 꿀이나 레몬을 첨가해서 먹기 시작했고, 1767년에 영국의 조셉 프리슬리가 최초의 인공 탄산수를 개발했다. 미국의 필립 박사는 1807년에 환자들이 마시기 편하도록 탄산수에 향을 첨가했다.
- **탄산음료의 성분:**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탄산음료는 쓴 가격으로 달고 청량한 맛을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천연 재료가 아닌 액상 과당이나 구연산 나트륨 등의 인공 첨가물을 사용하고 있다. 액상 과당은 단맛을 내는 시럽으로 설탕보다 달면서 가격은 더 싸다. 구연산 나트륨은 신맛을 내기 위한 인공 첨가물이다.
- **탄산음료의 문제점:** 인공 첨가물이 많이 함유된 탄산음료는 대표적인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과잉 섭취하게 되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 또 탄산음료의 강한 산성은 치아를 부식시키고,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뼈를 약하게 하고,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정한 약품 섭취를 방해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제언>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 마시는 탄산음료. 그 시원함은 순간의 눈속임. 거기에는 건강을 해치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다.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자. 우리의 건강을 지키자.

(다)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가공 음료 섭취량 (단위: ml)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생수와 우유를 제외한 국민 1인당 가공 음료 섭취량은 하루 평균 185ml였다. 종이컵(195ml)으로 매일 한 잔 정도를 마시는 셈이다. 탄산음료(탄산수 포함)가 81ml(44.2%)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과채 주스 27.8ml(15.2%), 커피(액상), 17.6ml(9.6%) 순이었다. - □□ 신문

3. [A]~[E]에 나타난 인터뷰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학생 2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고 있다.
- ② [B]: 학생 1은 전문가의 말을 듣고 알게 된 새로운 사실에 놀라며 질문하고 있다.
- ③ [C]: 전문가는 자신이 잘못 설명한 부분을 정정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더하고 있다.
- ④ [D]: 학생 2는 자신의 상황을 말하며 전문가가 언급한 내용에 이어지는 질문을 하고 있다.
- ⑤ [E]: 전문가는 행동의 변화를 권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있다.

4. 인터뷰의 흐름을 고려하여 ㉠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탄산음료는 언제 생겨났나요?
- ④ 탄산수의 개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⑤ 인공 탄산수에는 어떤 향이 첨가되었나요?
- ② 청량음료와 탄산음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③ 자연 탄산수와 인공 탄산수의 맛은 어떻게 다른가요?

5. 다음은 (가)에 참여한 '학생 1'과 '학생 2'의 대화이다. (가)와 (나)를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학생 2: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쓴다고 했잖아. 어떤 내용을 글에 포함할 거니?

학생 1: 전문가는 ㉠

- ① 요즘의 탄산음료에는 인공 첨가물이 들어 있다고 예를 드셨지. 이러한 인공 첨가물의 특성을 제시해야겠어.
- ② 옛날에는 자연 그대로의 탄산수를 마셨다고 하셨지. 자연 그대로의 탄산수가 몸에 끼치는 영향을 글에 제시해야겠어.
- ③ 환자들이 약으로 먹는 탄산수에 향을 넣었다고 하셨지. 탄산음료가 의료 행위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글에 제시해야겠어.
- ④ 탄산음료가 특정한 병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셨지.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셔 건강을 지켜야한다는 내용을 넣어야겠어.
- ⑤ 습관에 대해 얘기하셨지. 나는 음식을 빨리 먹는 습관이 있어. 이러한 습관도 탄산음료를 먹는 것처럼 비만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을 제시해야겠어.

6. (나)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다)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목적>에서 무심코 탄산음료를 마시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② <내용>에서 탄산음료를 포함한 가공 음료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③ <내용>에서 탄산수에 레몬을 첨가해서 먹었던 것이 과채 주스와 연관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④ <내용>에서 우리 국민들이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탄산음료를 다른 음료에 비해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제언>에서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탄산음료의 원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7. (나)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제>는 글의 중심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다.
- ② <목적>에는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어휘가 있다.
- ③ <내용>에서는 핵심 내용을 알려 주는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 ④ <내용>에서 '탄산음료의 역사'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되어 있다.
- ⑤ <제언>에서는 관용 어구를 활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집약하고 있다.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계획]

<p>[처음] -인사와 함께 글쓴이 소개 -지난 산행에 대한 간단한 보고.....㉠</p> <p>[중간] -산행지 선정 이유 언급㉡ -코스에 따른 두 가지 팀 안내㉢ -국립공원 등산로 등급제와 등급별 코스에 대한 설명㉣ -안전 산행을 위한 체력 훈련 방법 안내㉤</p> <p>[끝] -산행에 대한 기대감 표현 -산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 공지 예고</p>

[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산이 좋아 산을 지키고 있는 회장 ○○○입니다. 지난 1차 ‘소백산’ 등산에는 서른여섯 분의 회원이 참가하셔서 소백산 삼가 탐방지원센터에서 어의곡에 이르는 왕복 약 10km의 코스를 다녀왔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산행을 마치고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가 복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해 드릴 사항은 다음 주말에 실시할 12차 산행을 설악산 등산로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운영진에서 설악산으로 산행을 정한 이유는 카페에서 실시한 산행지 온라인 투표에서 설악산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여러 회원님들이 운영진에 난이도가 높은 산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셨습니다.

이번 산행은 설악산 오색 분소에서 대청 분소까지를 왕복하는 것으로, 편도 약 5km를 4시간에 가야 하는 좀 힘든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청 분소까지 다녀오실 ‘산에서’ 팀과, 대청분소에 가지 않고 권금성을 케이블카로 다녀오는 ‘사노라네’ 팀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사노라네’ 팀에는, 권금성을 다녀오신 후 설악산 패러글라이딩 협회 회원이시기도 한 △△△ 회원께서 특별히 패러글라이딩 연수 기회를 드린다고 하니 멋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그렇다고 모두 ‘사노라네’ 팀으로 가버리시면 정말 ㉢힘난합니다.

회원 여러분을 위해 ‘국립공원 등산로 등급제’에 관한 정보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국립공원 등산로 등급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전국 약 1,70km의 등산로에 대해 경사와 폭, 거리, 노면 상태 등을 조사해 등산로별 난이도로 등급을 매긴 제도입니다. 등급별 코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매우 쉬움’ 코스는 노면이 평탄하고 폭도 넓고 경사가 완만한 구간, ‘쉬움’ 코스는 평탄한 흙길 위주의 등산로입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무리한 등산로로 발생하는 심장 돌연사, 골절, 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등산로 등급제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코스는 가벼운 등산을 위한 코스, ‘어려움’ 코스는 심한 경사와 돌로 이루어진 4~7시간의 중거리 코스, ‘매우 어려움’ 코스는 아주 심한 경사와 대부분 돌로 이루어진 장거리 코스이니, 등산하실 때 꼭 참고하십시오.

제가 회원님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번 산행에도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청 분소 코스에는 경사도 심하고, 돌길이 많은 ‘매우 어려움’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산행을 위해 체력 훈련을 많이 하시고, 등산 장비도 꼼꼼히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비가 살짝 올 것으로 예상되니, 우비도 꼭 준비해 주십시오. 등산을 잘 한다고 자신하는 분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안전한 산행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A]

8. ‘작문 계획’의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9. ‘작문 계획’중 [끝]부분에 따라 작성한 [A]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태양 빛은 더없이 강렬해지고 뜨거운 바람은 우리의 눈과 귀를 훑훑 북아칩니다. 그러나 설악산에서 멋진 땀방울을 흘릴 일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행복해집니다
- ② 태양 빛은 강렬하지만 설악산에서 멋진 땀방울을 흘릴 일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행복해집니다. 이번 산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총무님을 통해 추후 카페 ‘공지사항’에 올리겠습니다.
- ③ 우리 모두 반드시 대청 분소에 올라 설악산의 정기를 받으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 봅시다. 이번 산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총무님을 통해 추후 카페 ‘공지사항’에 올리겠습니다.
- ④ 태양 빛은 더없이 강렬해지고 뜨거운 바람은 우리의 눈과 귀를 훑훑 북아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대청 분소에 올라 설악산의 정기를 받으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 봅시다.
- ⑤ 태양 빛은 강렬하지만 설악산에서 멋진 땀방울을 흘릴 일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행복해집니다. 지난 번에 거론된 새로운 회장 선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총무님을 통해 추후 카페 ‘공지사항’에 올리겠습니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의미상 중복된 표현이므로 삭제한다.
- ② ㉡ : 주어와의 호응이 잘못되었으므로 ‘차지했기’로 바꾼다.
- ③ ㉢ : 단어의 선택이 잘못되었으므로 ‘난해’로 바꾼다.
- ④ ㉣ : 내용의 흐름을 고려하여 앞의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 ⑤ ㉣ : 앞뒤 문장의 연결이 어색하므로 ‘특히’로 바꾼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감탄문은 화자가 청자를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감탄문은 감동·응답·부름·놀람 따위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와 함께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현대 국어의 감탄문은 감탄형 어미의 형태에 따라 ‘구나’ 형 감탄문과 ‘어라’ 형 감탄문으로 나눌 수 있다.

‘구나’ 형 감탄문은 감탄문의 일반적 유형인데,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의 어간에 ‘-(는)구나, -(는)구먼, -(는)구려, -군, -네’ 등이 붙어서 실현된다. 이에 비해 ‘어라’ 형 감탄문은 형용사의 어간에 종결 어미인 ‘-아라/-어라/-여라’가 붙어서 실현된다. 감탄문은 다른 문장 성분 없이 독립어와 서술어만으로 실현될 수 있다. ‘구나’ 형 감탄문의 높임 표현도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 있는데, 격식체에는 ‘해라체’의 ‘-(는)구나’, 하계체의 ‘-(는)구먼’, 하오체의 ‘-(는)구려’ 등이 쓰이고, 비격식체에는 ‘해체’의 ‘-군, -네’ 등이 쓰인다.

한편 중세 국어의 감탄문은 감탄형 종결 어미로 실현되는 경우와 선어말 어미로 실현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서술어로 쓰이는 용언에 감탄형 종결 어미인 ‘-너더, -르써/-르셔’ 등이 붙어서 실현되고, 후자는 선어말 어미인 ‘-도-/-뒷-/-웃-’ 등이 붙어서 실현된다. ‘-도-’는 ‘-다’ 앞에서 쓰인 ‘-뒷-’의 이형태이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맛, 차가워라
 ㉡ 철수가 계를 잡는구나
 ㉢ 벌써 개나리가 피었네
 ㉣ 아, 시원해라
 ㉤ 철수야, 거기 멈춰라

- ① ㉠과 ㉡은 놀람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와 함께 실현된 감탄문이다.
- ② ㉢과 ㉤은 ㉣과는 다르게 ‘구나’ 형 감탄문에 해당한다.
- ③ ㉣은 해체로 쓰이는 감탄형 어미가 붙어서 실현된 감탄문이다.
- ④ 감탄문으로 보기 어려운 문장은 총 1개이다.
- ⑤ 다른 문장 성분 없이 독립어와 서술어만으로 감탄문이 실현된 문장은 총 2개이다.

12. 윗글 [A]를 바탕으로 한 <보기>의 감탄문 ㉠~㉤을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義는 그 큰더 (의는 그것이 크구나)
 ㉡ 摩耶 | 如來를 나쓰복실써 (마야가 여래를 낳으셨구나)
 ㉢ 새 그릇어제 브터 보내뒷더라 (새 글을 어제 부쳐 보내었더구나)
 ㉣ 내 아드리 어딜써 (내 아들이 어질구나)
 ㉤ 빠디 기프시도다 (뜻이 깊으시구나)

* ()는 현대어 풀이를 나타냄.

- ① ㉠, ㉡, ㉣은 현대어 풀이와는 다르게 감탄형 종결 어미로 감탄문이 성립된다.
- ② ㉠의 ‘-너더’는 현대어의 ‘구나’로 ㉢, ㉣의 ‘-르써’는 현대어의 ‘어라’로 대응된다.
- ③ ㉢과 ㉤을 비교해 보면 감탄문을 만드는 선어말 어미의 이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1인칭 화자의 감탄문을 나타내는 것은 ㉣가 유일하다.
- ⑤ 현대어와 마찬가지로 ㉠과 ㉢을 통해 감탄형 종결어미와 감탄형 선어말 어미의 존재를 확인해 볼 수 있다.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로마자 표기 한글 대조표〉

	자음	ㄱ	ㄷ	ㅂ	ㅌ	ㄴ	ㅇ	ㅈ	ㅊ	ㅌ	ㅎ
표	모음 앞	g	d	b							
기	그 외	k	t	p	tt	n	m	ng	j	ch	t

모음	ㅏ	ㅓ	ㅗ	ㅣ
표기	a	ae	o	i

〈로마자 표기의 예〉

	한글 표기	발음	로마자 표기
㉠	같이	[가치]	gachi
㉡	잡다	[잡따]	japda
㉢	놓지	[노치]	nochi
㉣	맨입	[맨닙]	maennip
㉤	백미	[뱅미]	baengmi

- ① ㉠과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종류는 동일하며,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②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눙다[널따]’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 ③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달아[다라]’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④ ㉣과 ‘먹다[먹따]’는 음운 변동 후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며,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⑤ ㉠~㉤ 중 음운 변동이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는 1개이다.

14. 다음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지금까지 형태소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특성에 대해 공부했지요? 그럼,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말들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 *철수가 10년 뒤에 선생님이 되었다.
- *상자의 뒷개를 여니 지우개 나왔다.
- *배가 고프니 어서 점심을 먹도록 하자.

학생: 밑줄 친 말들은 모두 (가)

- ① 상황에 따라 단어의 자격을 갖기도 하는군요.
- ② 음운 환경에 따라 품사가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 ③ 음운 환경에 따라 실질적 의미 혹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 ④ 항상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문법적인 혹은 보조적인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 ⑤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고 문법적인 혹은 보조적인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1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아버지: (아이 방으로 들어오며) 딸, ㉠이거 받아.
딸: (선물을 보며) 어? ㉡그게 뭐예요?
아버지: 응. ㉢스웨터야. 어제 고모를 만났는데, 곧 있으면 은주 생일이라고 주시더라. 마음에 드니? ㉣저 옷이랑 같이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딸: 와! ㉤그러면 정말 예쁘겠네요. 내일 당장 입어야겠어요.
아버지: 그래. 고모한테 고맙다고 전화 한 통 드려.
딸: 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그런데 내일 아빠랑 영화나 보러 갈까?
딸: 정말요? 오늘 ㉢은주는 너무 행복해질 것 같아요!

- ① ㉠과 ㉡은 ㉢을 나타내는 다른 물건을 가리킨다.
- ② ㉠, ㉡, ㉢은 대상에 대한 화자와 청자의 거리에 따라 정해지는 표현이다.
- ③ ㉣과 ㉤은 앞서 한 말을 대신 표현하고 있어 담화의 중복을 피한다.
- ④ ㉡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은주와 나눈 대화의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는 기능을 한다.
- ⑤ ㉢은 현재 담화 상황에 있는 인물이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에서 ‘이미지(심상)’란 시적 언어에 의해 우리의 머릿속에 재현된 구체적 형상이나 그와 관련되어 연상되는 추상적인 관념의 표상으로, 독자에게 감각적 인상을 불러일으켜 사물의 인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다.

이미지의 기능에 대해 문학 비평가 프라임은 이미지는 재재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독자의 내면세계를 자극하며, 독자의 반응을 유도하여 시를 정서와 연결해 주는 구실을 한다고 [A] 하였다. 루이스는 이미지가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서서는 맛볼 수 없는 신선미를 빚어내고, 함축적 의미를 사용하여 시어에 탄력감을 부여하는 강렬성을 가져오며, 시를 읽을 때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인 환기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이미지는 크게 감각적 이미지와 상징적 이미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이미지는 마음속에 재생,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감각적 이미지는 시각, 청각이 중심이 되지만 후각, 미각, 촉각과 무게, 운동, 근육 감각 등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독자들은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 체험을 되살림으로써 대상에 대한 선명한 인상을 느끼게 된다.

상징적 이미지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관습화되어 형성된 관념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로, 감각적 이미지보다 보편성이 반영되어 있다. 시·공간, 민족, 문화, 역사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유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서 원형적 이미지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에서 ‘물’은 더러운 것을 정화하고 생명을 지속시키는 재생의 힘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기도 하고 그리스 신화 속 레테의 강처럼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한편, ‘꽃’은 순수한 생명력과 경이로움을 표상하는 자연적 존재로서 인식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빛깔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동서를 막론하고 여성적 이미지로 인식된다.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운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달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을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다)

규방에 일이 없어 백화보(百花譜)*를 펼쳐 보니
 봉선화 이 이름을 누라서 지었는고
 신선의 옥피리 소리 선경(仙景)으로 행한 후에
 규방에 남은 인연이 일지화(一枝花)에 머무르니
 ㉠유약한 푸른 잎은 봉황(鳳凰) 꼬리가 넘노는 듯
 태연자약 붉은 꽃은 신선(神仙) 옷을 펼쳤는 듯
 백옥성 깨끗한 흠에 촘촘히 심어 내니
 춘삼월 지난 후에 향기 없다 웃지 마소
 취한 나비 미친 벌이 따라올까 저어하네
 ㉡정숙한 저 기상을 여자밖에 누 벗할꼬
 옥난간 긴긴 날에 보아도 다 못 보아
 사창(紗窓)을 반쯤 열고 계집종을 불러내어
 다 핀 꽃을 캐어다가 수(繡) 상자에 담아 놓고
 바느질 그친 후에 안채에 밤이 깊어 촛불이 밝았을 제
 ㉢나옴나옴 바로 앉아 흰 구슬 가루로 갈아
 빙옥(氷玉) 같은 손 가운데 난만히 개어 내어
 파사국 저 제후의 홍산호*를 펼쳤는 듯
 심궁 풍류(風流) 절구에 도마뱀을 빨았는 듯
 성성옥수 열 손가락에 수실로 감아 내니
 종이 위에 붉은 물이 희미하게 스미는 양
 미인의 얇은 뺨에 붉은 이슬 어리는 듯
 단단히 봉한 모양 비단 옥자(玉字) 편지 한 통 서왕모에게 부치
 는 듯
 춘연을 늦게 깨어 차례로 풀어 놓고
 거울을 앞에 두고 눈썹을 그리려니
 난데없는 붉은 꽃이 가지에 붙었는 듯
 손으로 잡으려니 분분이 흩어지고
 입으로 불러 하니 안개 섞여 가리었다
 동무를 서로 불러 낭랑히 자랑하고
 ㉣꽃 앞에 나아가서 두 빛을 비교하니
 쪽잎에서 나온 물이 쪽빛보다 푸르단 말 이 아니 옳을쏜가
 은근히 풀을 매고 돌아와서 누웠더니
 녹의홍상(綠衣紅裳) 한 여자가 표현히 앞에 와서
 웃는 듯 찡그리는 듯, 사례하는 듯 하직하는 듯
 몽롱하게 잠을 깨어 정녕히 생각하니
 아마도 꽃 귀신이 내게 와 하직했는가
 방문을 급히 열고 꽃 수풀을 살펴보니
 땅 위에 붉은 꽃이 가득히 수놓았다
 암암히 슬퍼하고 날날이 주위 담아
 ㉤꽃다려 말 붙이네 그대는 한치 마소.
 시세 연년에 꽃빛은 의구(依舊)하니
 하물며 그대 자취 내 손톱에 머물렀지
 동산의 도리화는 편시춘(片時春)*을 자랑 마소
 이십 번 꽃바람에 적막하게 떨어질들 누라서 슬퍼할꼬
 규중에 남은 인연이 그대 한 몸뿐이로세
 봉선화 이 이름을 누라서 지었는고
 일로 하여 지었어라

- 작자 미상, 「봉선화가」 -

- * 백화보: 여러 가지 꽃을 그려 놓고 설명을 덧붙인 그림첩.
- * 파사국 저 제후의 홍산호: 페르시아 제후의 붉은 산호.
- * 편시춘: 아주 짧은 봄.

16. (나)와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정법의 형태로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동일한 구절을 앞뒤에 배치하여 형식적인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17.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물’과 ‘불’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 경험을 환기시킬 수 있는 구체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어.
- ② (나)에서 ‘물’은 근원적인 생명력과 정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원형적 이미지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③ (다)는 ‘봉선화’의 모습을 다양한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감각적으로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어.
- ④ (다)는 ‘봉선화’가 지닌 아름다움의 속성에 주목하여 ‘녹의홍상 한 여자’와 같이 여성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어.
- ⑤ (다)에서 ‘땅 위에 붉은 꽃’은 피어나는 생명력에 대한 경이로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이미지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18. (가)의 [A]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하늘’은 독자들에게 넓고 깨끗한 것에 대한 생각을 환기시킴으로써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와 연결될 수 있겠군.
- ②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다는 촉각적 이미지는 독자들에게 부드러움과 관련된 감각적 반응을 유도하여 따뜻하고 희망적인 상황을 느끼게 하는군.
- ③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와 같은 청각적 이미지는 시어의 의미를 더 강렬하게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군.
- ④ ‘죽은 나무뿌리’는 현대 사회의 삭막하고 황폐한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력감이 있는 시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흐르는 물’이라는 시어에 포함된 역동적 이미지는 생명력에 대한 강한 소망이라는 정서를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겠군.

19. (다)의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다른 대상에 빗대어 봉선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 ② ㉡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봉선화가 지닌 긍정적인 속성을 강조하고 있어.
- ③ ㉢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봉선화 물들이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 ④ ㉣에서는 고사를 인용하여 손톱에 물든 봉선화를 보고 느낀 감정을 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 ⑤ ㉣에서는 봉선화에 인격을 부여하여 말을 건넌으로써 대상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어.

20. <보기>와 (다)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인문이 생긴 후에 오류이 쫓아 나니
 규중에 여자로서 다 알 수가 있나마는
 칠거지악(七去之惡) 옛법이라 삼종지도(三從之道) 모름소냐
 (중략)
 자주자주 나아가서 기운을 살핀 후에
 안색을 화케 하며 소리를 낮초와서
 문안을 드린 후에 음식을 묻자오며
 잠죽히 기다려서 문난 말삼 대답하고
 - 작자 미상, 「계녀가(戒女歌)」 -

- ① <보기>와 (다)는 모두 규방 여인들의 한가로운 삶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고 있다.
- ② <보기>는 (다)와 달리 사대부 집안의 여성으로서 느끼는 한의 정서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③ <보기>는 화자의 관념적 사고를 바탕으로, (다)는 화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보기>와 달리 (다)는 부녀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봉건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⑤ <보기>는 예찬적 어조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다)는 기원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과거에 ㉠일어난 금융위기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어도 그 원인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금융위기가 여러 차원의 현상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이나 금융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은행위기를 중심으로 금융위기에 관한 주요 시각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이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로 어떤 시각에 기초해서 금융위기를 이해하는가에 따라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의견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은행의 지불능력이 취약하다고 많은 예금주들이 예상하게 되면 실제로 은행의 지불능력이 취약해지는 현상, 즉 ㉡ ‘자기 실현적 예상’이라 불리는 현상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예금주들이 예금을 인출하려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이 예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부분준비제도는 현대 은행 시스템의 본질적 측면이다. 이 제도에서는 은행의 지불능력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예금주들의 예상이 바뀌면 예금 인출이 쇄도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예금은 만기가 없고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독특한 성격의 채무이기 때문에, 지불능력이 취약해져서 은행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된 사람이라면 남보다 먼저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금 인출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예금 인출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은행들은 현금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들이 앞다투어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매각하려고 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은행들의 지불능력이 실제로 낮아진다.

둘째, ㉢ 은행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은 회사의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자산의 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존재이고 통상적으로 유한책임을 진다. 따라서 회사의 자산 가치가 부채액보다 더 커질수록 주주에게 돌아올 이익도 커지지만,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주주의 손실은 그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 비대칭적인 이익 구조로 인해 수익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위험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된 주주들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을 선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주주들이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채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인데,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이러한 동기는 더욱 강해진다. 은행과 같은 금융 중개 기관들은 대부분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주식회사 형태를 띤다.

셋째, ㉤ 은행가의 은행 약탈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서는 은행의 부실을 과도한 위험 추구의 결과로 이해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은행가들에 의한 은행 약탈의 결과로 은행이 부실해진다는 인식도 강해지고 있다. 과도한 위험 추구는 은행의 수익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은행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큰 행위를 은행가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은행 약탈은 은행가가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추구하여 은행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가들이 자신이 지배하는 은행으로부터 남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장기적으로 은행에 손실을 초래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과급을 높이기 위해 단기적인 성과만을 추구하는 행위 등은, 지배 주주나 고위 경영자의 지위를 가진 은행가가 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약탈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 이상 과열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위의 세 가지 시

각과 달리 이 시각은 경제 주체의 행동이 항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관찰에 기초하고 있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자산 가격이 일정 기간 상승하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고, 일정 기간 하락하면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이라 예상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경우 자산 가격 상승은 부채의 증가를 낳고 이는 다시 자산 가격의 더 큰 상승을 낳는다. 이러한 상승작용으로 인해 거품이 커지는 과정은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 금융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게 되므로, 거품이 터져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고 금융위기가 일어날 현실적 조건을 강화시킨다.

2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금융위기에 대한 네 가지 연구를 소개하며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금융위기에 관한 원인과 대책을 제시한 후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있다.
- ③ 은행위기를 중심으로 금융위기에 관한 주요 시각을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④ 금융위기와 은행위기에 대한 대책을 분류한 후 그 한계점을 평가하고 있다.
- ⑤ 과거에 일어난 금융위기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어도 그 원인에 대해 의견이 모이지 않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22. ㉠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산한 회사의 자산 가치가 부채액에 못 미칠 경우에 주주들이 저야 할 책임은 한정되어 있다.
- ② 회사의 자산 가치에서 부채액을 뺀 값이 0보다 클 경우에, 그 값은 원칙적으로 주주의 몫이 된다.
- ③ 회사가 자산을 다 팔아도 부채를 다 갚지 못할 경우에, 얼마나 많이 못 갚는지는 주주들의 이해와 무관하다.
- ④ 주주들이 선호하는 고위험 고수익 사업은 성공한다면 회사가 큰 수익을 얻지만, 실패한다면 회사가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 ⑤ 주주들이 고위험 고수익 사업을 선호하는 것은, 이런 사업이 회사의 자산 가치와 부채액 사이의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윗글의 ㉠~㉢를 토대로 23번과 24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23. ㉠~㉢의 시각으로 <보기>의 사례를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1980년대 후반에 A국에서 장기 주택담보 대출에 전문화한 은행인 저축대부조합들이 대량 파산하였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주목받았다.

- 1970년대 이후 석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 저축대부조합들의 파산이 가장 많았다.
-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보고 앞으로도 자산 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것을 예상하고 빚을 얻어 자산을 구입하는 경제 주체들이 늘어났다.
- A국의 정부는 투자 상황을 낙관하여 저축대부조합이 고위험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 예금주들이 주인이 되는 상호회사 형태였던 저축대부조합들 중 다수가 1980년대에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였다.
- 파산 전에 저축대부조합의 대주주와 경영자들에 대한 보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 ① ㉠은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채권에 투자한 정도와 고위험 경영자들에게 성과급 형태로 보상을 지급한 정도가 비례했다는 점을 들어, 은행의 고위 경영자들을 비판할 것이다.
- ② ㉡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예금주들이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빚을 늘려 은행이 위기에 빠진 점을 들어, 예금주의 과도한 위험 추구 행태를 비판할 것이다.
- ③ ㉢은 저축대부조합들이 주식회사로 전환한 점을 들어, 고위험채권 투자를 감행한 결정이 궁극적으로 예금주의 이익을 더욱 증가시켰다고 은행을 옹호할 것이다.
- ④ ㉢은 저축대부조합이 정부의 규제 완화를 틈타 고위험채권에 투자하는 공격적인 경영을 한 점을 들어, 저축대부조합들의 행태를 용인한 예금주들을 비판할 것이다.
- ⑤ ㉢은 차입을 늘린 투자자들, 고위험채권에 투자한 저축대부조합들, 규제를 완화한 정부 모두 낙관적인 투자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점을 들어, 그 경제 주체 모두를 비판할 것이다.

24. ㉠~㉢에 따른 금융위기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예금 보험 제도는 ㉠에 따른 대책이다.
- ②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예금은 예금 보험 제도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에 따른 대책이다.
- ③ 은행들로 하여금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건전성 규제는 ㉡에 따른 대책이다.
- ④ 금융 감독 기관이 은행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들의 금융 거래에 대해 공시 의무를 강조하는 정책은 ㉢에 따른 대책이다.
- ⑤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서민들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질 때 담보 가치 대비 대출 한도 비율을 줄이는 정책은 ㉢에 따른 대책이다.

25. 문맥상 ㉔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뻥얇게 일어난 물보라를 보라.
- ② 자리에서 일어난 뒤 철수는 소리를 질렀다.
- ③ 욕심이 일어난 후로 그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 ④ 내가 교실에 도착했을 때 싸움은 이미 일어난 상태이다.
- ⑤ 기쁨으로 환호성이 일어난 후 우리나라가 한 골을 더 넣었다.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간 부분 줄거리] 이 승상은 대성의 인물됨이 비범한 것을 보고 딸 채봉과 약혼하도록 한다. 왕부인과 세 아들은 대성의 신분이 미천함을 들어 혼인을 반대하고, 병을 얻어 세상을 뜨게 된 승상은 삼 년 후에 대성과 채봉이 혼인하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긴다. 왕 부인과 세 아들은 유언을 지키지 않고, 자객을 보내 대성을 죽이려 한다.

차시 소생이 이생 등 보내고 탄식 왈,
 “주인이 손을 싫어하니 어찌할고?”
 할 즈음에 생의 쓴 관이 스스로 벗어나 공중에 솟았다가 떨어 지거늘 생이 경아하여 관을 즉시 소화하고 잠깐 ㉔팔괘를 보고 양천 탄 왈,
 “무슨 재앙을 당할고?”
 하여 촉을 밝히고 앉았더니 삼경은 하여 음풍이 일어나거늘 둔 갑법을 행하여 일신을 감추고 동정을 살피더니 자객이 변하여 ㉕음풍이 되어 들어와 살피다가 인적이 없음에 밖으로 행하고자 하거늘 생이 촉하(燭下)에 의지하여 불러 왈,
 “너는 깊은 밤에 칼을 들고 누를 해치고자 하느냐?”
 조현이 비로소 소생인 줄 알고 칼로 찌르니 홀연 생이 간데없는 지라. 현이 놀라 주저하더니 생이 북벽 촉하에서 꾸짖어 왈,
 “도적이 어찌 나를 당하리오?”
 하고 몸을 날려 칼로 조현을 치니 조현의 검광이 빛나며 생이 간데없더라. 홀연 소생이 칼을 들고 대질 왈,
 “무지한 도적이! 값을 중히 여겨 무죄한 사람을 해치고자 하니 하늘이 어찌 무심하리오. 내 살생을 말고자 하여 도(道)로써 이루 되 중시도 깨닫지 못하니 너는 나를 원망치 말라.”
 하고 칼을 들어 조현의 머리를 베고 대로(大怒)하여 칼을 들고 내당에 들어가 이생 등을 죽이려 하다가 생각하되, 군자의 차마 못할 바라 하고 칼을 던지고 붓을 빼어 ㉖글을 지어 벽상에 붙이니 왈,
 “주인의 은혜 입음이 태산이 가볍도다. 각자의 정이 깊음이 하해(河海)였도다. 사람이 지음을 잃음이 다시 만나기 어렵도다.”
 쓰기를 다함에 붓을 던지고 이 밤에 승상의 집에서 몸을 빼 표연히 서천으로 향하니라.
 각설, 소생이 자객을 베고 종일토록 가더니 문득 대해(大海)를 당함에 살피되 배 없어 건너기 망연한지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더니 이윽고 청풍이 일어남에 청아한 통소 소리 들리거늘 생이 어선만 여겨 크게 불러 왈,
 “해상의 어옹은 길 막힌 사람을 건네소서.”
 그 사람이 통소를 그치고 배를 강변에 달게 하거늘 생이 바빠 오르며 보니 청의동자(青衣童子)* 머리에 벽련화 꽃고 손에 옥저

를 쥐었음에 범인(凡人)이 아닌 줄 알고 사레 왈,
 “인간 무지한 눈이 선동을 모르고 배를 청했더니 용서하소서.”
 동자 왈,
 “약수(弱水) 삼천 리에 어찌 어선이 있으리오.”
 하고 배를 저어 서편 언덕에 닿으며 내림을 청하거늘 생이 문 왈,
 “약수는 서천 대해라. 어찌 순식간 건넜는가? 선동이 속객을 희롱함인가 하노라.”
 동자 소 왈,
 “나는 동해 ㉗용왕의 명을 받아 상공을 건너게 하였으니 이만 바다를 어찌 근심하리오.”
 하고 소매에서 선과(仙果) 하나를 내어 주거늘 생이 받아먹으며 정신이 상활(爽闊)한지라.*
 재삼 사레하니 선동이 하직하고 배를 돌이켜 표연히 가거늘 생이 공중을 향하여 사레하고 서로 종일토록 가더니 산이 막혀 하늘에 달았더라. 시내를 좇아 석벽 사이로 올라가니 청송취죽(靑松翠竹)*이 울울하고 기화요초(琪花瑤草)* 향기를 띠었는데 난봉 공작이 쌍쌍이 왕래하니 경계를 탐하여 점점 들어가니 운무 자욱하고 길이 끊어졌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더니 문득 풍경 소리 들리거늘 절이 있는가 하여 올라가니 한 ㉘노승이 나와 맞아 왈,
 “존객이 오시되 나가 맞지 못하니 죄를 사하소서.”
 생이 황망히 답례하니 노승이 생을 인도하여 절에 들어가니 모든 종이 배례하고 은근히 반기며 석자를 올리거늘 생이 그 후대함을 사레 왈,
 “정처 없이 다니는 객을 이같이 환대하십니까?”
 재승이 답 왈,
 “상공 맥 금은 수천 냥이 이 절에 있나이다.”
 생이 대 왈,
 “생은 본디 궁궁하거늘 무슨 금은이 있습니까?”
 노승이 소 왈,
 “이 땅은 서천 영보산 청룡사라. 수십 년 전의 부처의 명을 받아 상공 맥에 가온즉 금은 수천 냥 시주하시기로 이 절을 중수하고 발원했더니 세존이 감동하사 상공을 지시하심시오. 또한 상공이 소승과 오년 연분이 있으니 염려 마소서.”
 생이 듣고 일희일비하여 머물며 노승으로 더불어 병서와 경문을 강론하니 산중에 유발승(有髮僧)*이 되었던라.
 - 작자 미상, 「소대성전」 -

- * 개세군자 : 기상이나 위력, 재능 따위가 세상을 뒤덮을 만한 군자.
- * 청의동자 : 신선의 시종을 든다는 푸른 옷을 입은 사내아이.
- * 상활한지라 : 상쾌한지라.
- * 청송취죽 : 푸른 소나무, 푸른 대나무.
- * 기화요초 : 옥같이 고운 풀에 핀 구슬같이 아름다운 꽃.
- * 유발승 : 머리를 깎지 아니한 승려. 불도를 닦는 일반 사람.

2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점의 변화를 통해 장면의 긴박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전기적 요소를 사용하여 비현실적인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여 서사 전개에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인물 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교차 반복되며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7. 윗글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성이 꿈을 통해서 재앙을 당할 미래를 예견하게 한다.
- ② ㉡는 자객이 대성을 해치기 위해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등장하는 수단이다.
- ③ ㉢를 통해 대성은 승상의 집을 떠나기 전에 작별의 메시지를 남겼다.
- ④ ㉠은 선동이 대성을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결과임을 말해준다.
- ⑤ ㉢ 덕분에 대성은 처음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

28.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소대성전」은 유사한 모티프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홍길동전」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 영웅 소설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홍길동전」의 줄거리를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과 성장

홍 판서와 시비 사이에서 태어난 길동은 어렸을 때부터 재주가 뛰어나고 총명하였으나, 천비 소생이라는 이유로 천대를 받음.



가출과 조선에서의 활동

- 자신을 습격한 자객을 물리치고 집을 나와 활빈당을 조직하여 빈민을 구제함.
- 자신을 잡으려는 나라의 병사를 물리친 후, 병조 판서 벼슬을 받고 울도국으로 감.



이상 국가의 건설

- 울도국을 지배하던 요괴와의 전쟁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함.
- 울도국의 왕이 되어 이상적인 정치를 펼치다가 신선이 됨.

그러면 「소대성전」과 「홍길동전」을 비교하여 아래의 활동지를 해결해 볼까요?

	㉠ 「홍길동전」	㉡ 「소대성전」
공통점	㉠	
차이점	㉡	

- ① ㉠: ㉡와 ㉢는 모두 주인공의 신분이 미천하여 천대를 받는 것이 공통된다.
- ② ㉠: ㉡와 ㉢는 모두 자객의 습격과 퇴치의 과정을 겪은 후 주인공이 집을 떠난 것이 공통된다.
- ③ ㉡: ㉡는 ㉢와는 달리 국가와 국가의 대결이 사건 전개에 중요한 갈등 요소로 작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 ④ ㉡: ㉡는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상대방을 물리치고, ㉢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벗어나는 차이점이 있다.
- ⑤ ㉡: 세속적인 모습을 보이는 ㉡의 주인공과는 달리 ㉢의 주인공은 종교적인 길을 걷는 모습이 보이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존(O₃)은 산소 원자(O)와 산소 분자(O₂)가 결합하여 생성된 것으로 희석하여 소독제로 사용할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며, 지상 대기 중에서는 식물의 염록체와 인간의 폐 조직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오존은 생명체에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상층 대기에서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지상에서 오존은 질소 산화물이 강한 태양 광선을 받아 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된다. 질소 산화물은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며 대부분 산화질소(NO)와 이산화질소(NO₂)의 형태로 배출된다. 산화질소는 오존과 마찬가지로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산소 원자와 결합하여 보다 안정된 이산화질소로 전환된다. 이산화질소는 태양 광선을 받으면 다시 산화질소와 산소 원자로 분해된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산소 원자가 산소 분자와 결합하여 오존을 만든다. 오존이 생성되는 과정에 탄화수소가 촉매로 작용한다.

상층 대기의 오존은 주로 저위도의 성층권 하층에서 생성된다. 산소 분자가 자외선을 받아 산소 원자로 분해되고 분해된 산소 원자가 다른 산소 분자와 결합하여 오존이 생성된다. 이 과정에서 질소 분자나 산소 분자가 촉매로 작용한다. 성층권은 최하부 대기층인 대류권의 상공으로부터에 이르는 대기층인데 공기 50km의 연직 순환이 활발한 대류권과 달리 상층일수록 기온이 높아서 대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성층권의 기온은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양에 비례한다 오존은 성층권의 최하층에 대부분 존재하는데 이 층을 오존층이라고 한다. 오존층 파괴는 항공기 운행과 핵실험 과정에서 배출되는 산화질소의 영향도 있지만 이산화탄소와 함께 주요 온실 기체로 분류되고 있는 프레온 가스(CF₂Cl₂ 또는 CFCl₃)에 주로 기인한다. 1920년대 말에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프레온 가스는 매우 안정하여 대류권 내에서는 햇빛에 노출되어도 분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긴 시간에 걸쳐서 대기 대순환 과정을 통해 지구 대기 전역으로 확산되어 갈 수 있다. 프레온 가스는 성층권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분해되어 염소 원자(Cl)가 방출된다 염소 원자는 오존과 화학 반응하여 산화염소(CIO)를 생성하고 산화염소는 다시 산소 원자와 화학 반응하여 염소 원자로 돌아간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오존이 파괴된다.

햇빛이 매우 약한 겨울철 남극 상공의 하부 성층권에는 바람이 강하게 회전하는 거대한 원형의 소용돌이가 형성된다. 그리고 대

기 대순환에 의해 프레온 가스와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저위도로부터 소용돌이 내로 유입된다. 소용돌이로 유입된 공기 속에 존재하던 수증기는 얼음 결정으로 변하는데 이때 프레온 가스가 얼음 결정 속에 포집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겨울 동안 소용돌이 내에는 프레온 가스를 포집한 얼음 결정이 계속 적체된다. 봄이 되어 이 지역에 햇빛이 들면 소용돌이는 세력이 약화되어 와해되는데 이때 얼음 결정이 녹으면서 포집되어 있던 프레온 가스로부터 염소 원자가 공기 중으로 빠르게 방출되어 오존을 집중적으로 파괴한다. 남극의 오존층 파괴는 프레온 가스가 개발된 지 반세기가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프레온 가스가 남극 상공까지 수송되어 축적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한편 북극의 소용돌이는 남극만큼 강하지 않아 그 모양이 구불구불하여 소용돌이 내의 공기와 주변 공기 간에 혼합이 많이 일어나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는다. 이로 인해 오존층 파괴가 남극보다 덜하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성층권의 기온은 오히려 하강하게 되어 남극의 소용돌이뿐만 아니라 북극의 소용돌이도 더욱 강해지고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한다. 대기 중에 온실 기체 농도가 증가하면 대류권에서는 온실 기체가 기온 상승을 가져오지만 성층권에서는 성층권 특유의 열적 구조로 인하여 오히려 기온을 하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에 수반되어 극지방 소용돌이의 강도 변화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오존층 파괴의 양상이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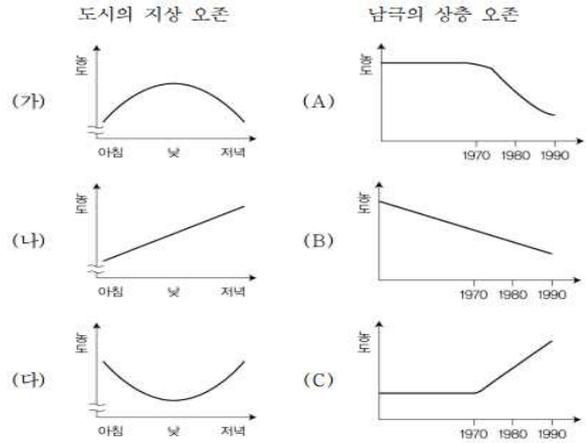
29.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오존에 대하여
 - 생성과 파괴를 중심으로
- ② 오존 생성의 원리
 - 축매를 중심으로
- ③ 오존의 특성과 역할
 - 장점과 단점을 중심으로
- ④ 오존층 파괴의 원인
 - 남극과 북극을 비교하며
- ⑤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 시대별 양상 비교

3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질소와 산소가 지상 오존 발생에 촉매로 작용한다.
- ② 프레온 가스는 오존층 파괴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유발한다.
- ③ 오존층 파괴는 프레온 가스 배출이 많은 지역의 상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 ④ 성층권에서 오존을 만드는 산소 원자는 주로 산화염소가 분해되어 생성된다.
- ⑤ 성층권에서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고도와 기온이 가장 높은 고도는 일치한다.

31. 도시의 지상 오존 농도와 남극의 상층 오존 농도의 변화를 다르게 나타낸 것끼리 묶인 것은?



	도시의 지상 오존 농도	남극의 상층 오존 농도
①	(가)	(A)
②	(가)	(B)
③	(나)	(B)
④	(다)	(A)
⑤	(다)	(C)

3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가 시작되는 시기는 봄 이후로 늦어진다.
- ② 성층권의 오존 농도가 감소되며 소용돌이 강도는 더 커진다.
- ③ 소용돌이 내에 농축되는 프레온 가스 양은 감소하게 된다.
- ④ 북반구의 자외선 강도가 남반구에 비해 더 커진다.
- ⑤ 북극 소용돌이의 형태는 더욱 구불구불해진다.

[33~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술사를 양식의 특수하고 자족적인 역사가 아니라 거시적 차원의 보편적 정신사 및 그 발전 법칙에 의거한다고 ㉠본 점에서 헤겔의 예술론은 구체적 작품들에 대한 풍부하고 수준 높은 진술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전형적인 철학적 미학에 속한다. 그는 예술사를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이라고 불리는 세 단계로 구분한다. 유익할 것은 이 단어들에 특정 예술 유파를 일컫는 일반적 용법과는 사뭇 다르게 사용된다는 점이다. 즉 이 세 용어는 지역 개념을 수반하는 문명사적 개념으로서 일차적으로는 대외의 오리엔트, 고대 그리스, 중세부터의 유럽에 각각 대응하며, 좀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자연 종교’, ‘예술 종교’, ‘계시 종교’라는 종교의 유형적 단계에 각각 대응한다. 나아가 이러한 대응 관계의 단계적 설정은 신이라는 ‘내용’과 그것의 외적 구현인 ‘형식’의 일치 정도에 의거하며, 가장 근본적으로는 순수한 개념적 사유를 향해 점증적으로 발전하는 지성 일반의 발전 법칙에 의거한다. 게다가 이 세 범주는 장르들에도 적용되어, 첫째 건축, 둘째 조각, 셋째 회화·음악·시문학이 차례로 각 단계에 대응한다. 장르론과 결합된 예술사론을 통해 헤겔은 역사의 특정 단계에 여러 장르가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각 단계에 대응하는 전형적 장르는 특정 장르로 한정한다.

㉠‘상징적’ 단계는 인간 정신이 아직 절대자를 어떤 구체적 실체로서 의식하지 못한 채, 절대적인 ‘무엇’을 향한 막연한 욕구만 지닐 뿐인 상태를 가리킨다. 오리엔트 자연 종교로 대표되는 이 단계에는 ‘신적인 것의 구체적 상을 찾아 헤멤’만 있을 뿐이다. 감관을 압도하는 거대 구조물이 건립되지만 그것은 그저 신을 위한 공간의 구실만 하지, 정작 신이 놓일 자리에는 신의 특정한 덕목(예컨대 ‘강함’)을 어렵듯이 표현할 수 있는 자연물(예컨대 사자)의 형상이 대신 놓인다. 미약한 내용을 거대한 형식이 압도함으로써 미의 실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이 단계의 전형적 장르는 신전으로 대표되는 건축이다.

㉡‘고전적’ 단계에서는 내용과 형식의 이러한 불일치가 극복된다. 고대 그리스 인들은 신들을 근본적으로 인간적 특질을 지닌 존재로 분명하게 의식했기 때문에, 이제 절대자는 어떤 생소한 자연물이 아니라 삼차원적 인체가 그대로 형상화되는 방식으로 제시되며, 이 단계를 대표하는 장르는 조각이다. 내용과 형식의 완전한 일치를 이룸으로써 그리스의 조각은 더 이상 재연될 수 없는 미의 극치로 평가된다. 나아가 예술 그 자체가 신성의 직접적 구현이기 때문에 이 단계의 예술은 그 자체가 이미 종교이며, 이에 따라 예술 종교라고 불린다.

그런데 인간의 지성은 이러한 미적 정점에 안주하지 않는다. 즉 지성은 절대자를 인간의 신체를 지닌 것으로 믿는 단계를 넘어 순수한 정신적 실체로 여기는 계시 종교로 나아가는데, 이로써 정신적 내면성이 감각적 외면성을 압도하는 ㉢‘낭만적’ 단계가 도래한다. 그리고 조각의 삼차원성을 탈피한 회화를 시작으로 음악과 시문학이 차례로 대표적 장르가 됨으로써, 예술 또한 감각적 요소가 아닌 정신적 요소에 의거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 때문에 내용과 형식의 부조화가 다시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이 단계는 상징적 단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상징적 단계에서는 제대로 된 정신적 내용이 아직 형성조차 되지 않았지만, 낭만적 단계에서는 감각적 형식으로는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고차적 내용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단계는 새로운 더 높은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정신과 역사의 최종 지점이기 때문에, 이후에 벌어지는 국면

들은 모두 ‘낭만적’이라고 불릴 수 있다.

주목할 것은 ㉣헤겔이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는 출발-완성-하강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행 모델을, 그리고 근본적인 정신사적 차원에서는 출발-상승-완성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행 모델을 따른다는 점이다. 즉 세 단계의 순서적 배열은 전자의 차원에서는 예술미의 정점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후자의 차원에서는 지성의 정점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성된다. 나아가 일견 불일치를 보일 법한 이 두 모델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그의 이론은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정신사적 차원에서의 정점이 예술미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퇴보를 의미하도록 구성된 이 이론은 한편으로는 ‘추(醜)’도 새로운 미적 가치로 인정되기 시작한 당시의 상황은 물론, ‘개념적’이라고까지 일컬어질 만큼 예술의 지성화가 진행된 오늘날의 상황까지 예견하여 설명할 수 있는 포섭력을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자의 제시라는 과제를 예술이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대 그리스로 한정하고 철학이라는 최고의 지적 영역에 그 과제를 이관시키는, 곧 ‘예술의 종언’ 명제라 불리는 미학적 결론에 이른다.

33. 윗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 ① 낭만적 단계에 이르는 과정
- ② 미시적 차원에서 본 헤겔의 예술론
- ③ 그리스 인들이 생각하는 신들의 특징
- ④ 낭만적 단계에서의 두 가지 이행 모델
- ⑤ 상징적 단계에서 예를 든 사자가 갖는 의미

34. 윗글에 제시된 헤겔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 ① 예술은 내용과 형식의 합일이라는 구체적 방식으로 구현되므로, 작품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개념에 앞선 개별 작품의 파악이다.
- ② 예술의 단계적 변천은 인간 정신의 보편적 발전에 의해 추동되므로, 작품들의 미적 수준의 차이는 그것들의 장르적 상이성과 무관하다.
- ③ 문명의 모든 단계적 이행은 인간 정신의 발전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예술의 역사는 다른 영역의 역사와 연계되어 기술되어야 한다.
- ④ 예술은 인간 정신의 심층적 차원을 표출한 것이므로, 예술미의 성취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 ⑤ 예술 양식 변화의 근원은 인간 내면의 보편적인 정신적 욕구에 있으므로, 모든 시대의 작품들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35. <보기>와 뒷글의 ㉠~㉣의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태고 오리엔트 조각	㉡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 중세의 기독교 회화	㉣ 근대의 고전주의 음악
㉤ 현대의 건축	

- ① ㉠은 ㉠과 ㉣에 부분적으로 대응된다.
- ② ㉡는 ㉣에 전적으로 대응된다.
- ③ ㉢은 ㉡과 ㉣에 부분적으로 대응된다.
- ④ ㉣ 혹은 ㉤가 ㉠에 전적으로 대응된다.
- ⑤ ㉤는 ㉣와는 달리 ㉡에 전적으로 대응된다.

36. ㉠을 바탕으로 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장 앞 단계의 예술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 ② 가장 뒷단계의 예술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 ③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지성적인 예술은 없다.
- ④ 가장 비지성적인 예술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 ⑤ 가장 추한 예술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37. 뒷글에 나타난 헤겔의 예술론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념에 주로 의존하는 전형적인 철학적 미학이기 때문에 논증적 수준은 높지만 실질적 사례를 언급한 경우는 많지 않다.
- ② 당대까지의 예술 현상에 대한 제한된 경험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후 시대의 예술적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결여하고 있다.
- ③ 정신사적 차원에서의 설명과 종교사적 차원에서의 설명을 분리함으로써 양자 간에 발생한 결론상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 ④ 예술사의 시대 구분과 각 예술 장르에 대한 설명이 서로 무관한 논리와 개념에 의거하기 때문에 이론의 전체적 정합성이 떨어진다.
- ⑤ 당대 유럽 이외의 문화를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지성적 단계에 위치시킴으로써 이론적으로 근대 서구의 자기 우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8. ㉠에서 '보다'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일을 경험함을 나타내는 말.
- ②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말.
- ③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 ④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고 난 후에 뒷말이 뜻하는 사실을 새 로 깨닫게 되는 말.
- ⑤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하거나 어렵듯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도념: (홀연히) 스님, 전 세상에 가서 살구 싶어요.
주지: 닥디려. 무얼 잘했다고 또 그런 소릴 하구 있니?
도념: 절더러 거짓말한다구만 마시구, 저한테 어머니 계신 데를 가르쳐 주십쇼.
주지: 네 어미란 대죄를 지은 자야. 너에게 에미라기보다 대천지 원수라는 게 마땅하겠다. 파계를 한 네 에미 죄의 피가 그 피를 받은 네 심줄에 가득 차 있으니, 너는 남이 한 번 해 일 염주면 두 번을 해야 한다.
도념: 왜 밤낮 어머니 욕만 하십니까? 아름다운 관세음보살님은 그 얼굴처럼 마음두 인자하시다구 하시지 않으셨어요? 절에 오는 사람마다 모두들 우리 엄마는 이뻐서 것이라구 허는 걸 보면 스님 말씀 같은 그런 무서운 죄를 지으셨을 리가 없어요.
주지: 그건 부처님에게만 여쭙는 소리야. 너 유식론(唯識論)*에 쓰인 경문 알지?
도념: 네.
주지: 외면사보살(外面似菩薩) 내면여야차*(內面如夜叉)라 하셨 느니라. 네 어미는 바로 이 경문과 같이, 얼굴은 보살님같이 아름답지만, 마음은 야차같이 무서운 독물이야.
도념: 스님, 그렇게 악마 같을 리가 없습니다.
주지: 네 아버지의 죄가 네 어미에게도 옮겨서 그러니라.
도념: 옳다니요?
주지: 네 아버지는 사냥꾼이거든. 하루에 두 산 짐승을 수십 마리씩 잡아, 부처님의 가슴을 서늘하게한 대악무도한 자야. 빨리 법당으로 들어가자. 냉수에 목욕하구, 내가 부처님께 네가 저지른 죄를 모다 깨끗이 씻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마.
도념: 싫어요. 싫어요. 하루 종일 향불 냄새를 씌면 골치가 어쩔 어쩔해요.
주지: 이게 무슨 죄받을 소리니? (조용히 달려며) 도념아, 너, 저 연못을 보라. 오월이 되면 꽃이 피고, 앞사귀에 구슬 같은 이슬이 구르구 있지 않니? 저렇게 잔잔한 연못두 한 걸 물만 퍼내구 보면 시꺼먼 개흙투성이야. 그것뿐인 줄 아니? 십년 묵은 이무기가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갈라구 헛바닥을 날름거리며 비 오기만 기다리구 있단다. 동네두 꼭 저 연못과 마찬가지로. 걸으루 보면 모두 즐겁구 평화한 듯하지만 속에는 모든 죄악과 진애(塵埃)*가 들끓는 그야말로 경문에 아로새겨 있는 글자 그대로 오탁(五濁)*의 사바(娑婆)*니라.

도념: 아니에요. 모두들 그렇지 않대요. 연못 속에는 연근이라는 뿌력지가 있지 이무기는 없대요.

주지: 누가 그러던? 누가 그래?

도념: 동네 사람들 올라올 적마다 물어봤어요.

주지: 그럼 동네 녀석들 하는 소리는 정말이구 내 말은 거짓말이란 말이지?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 모두 거짓말이란 말이지? 오! 이런 불가사리 같은 녀석 봤나? (하고 펄펄 댕다.)

도념: 스님, 바른대루 말이지, 저는 이 절에 있기가 싫습니다.

주지: 듣자 듣자 하니까 나중엔 못 하는 소리가 없구나? 오 그 눈으로 날 보지 마라. 살생을 하더니, 전신에 살이 뻗친 모양이다.

<중략>

주위는 차츰차츰 어두워진다.

이윽고 ㉔**범종 소리** 들려온다. 멀리 산울림.

초부, 나무를 안고 나와 지계에 엎고, 담배를 한 대 피운다. 흘날리는 초설(初雪)을 머리에 받은 채 슬픈 듯한 표정으로 종소리를 듣는다.

사이.

이윽고 종소리 그친다.

도념, 고깔을 쓰고 바람*을 걸머지고, 깡매기*를 들고 나온다.

초부: (지계를 지고 일어서며) 지금 그 종 네가 쳤나?

도념: 그럼은요. 언제 내가 안 치구 다른 이가 쳤나요?

초부: 밤낮 나무해 가지구 비탈 내려가면서 듣는 소리지만 오늘은 왜 그런지 유난히 슬프구나. (일어서다가 도념의 옷차림을 발견하고) 아니, 너 갑자기 바람은 왜 걸머지구 나오니?

도념: 이번 가면 다시 안 올지 몰라요.

초부: 왜? 스님이 동냥 나가라구 하시든?

도념: 아아니요. 몰래 나가려구 해요.

초부: 이렇게 눈이 오는데 잘 데두 없을 텐데, 어딜 간다구 이리니? 응, 갈 곳이나 있니?

도념: 조선 팔도 다 돌아다닐걸요 뭐.

초부: 아 애, 그런 생각 말구, 어서 가서 스님 말씀 잘 듣구 있거라.

도념: 벌써 언제부터 나가려구 별렸는데요? 그렇지만 스님을 속이구 몰래 도망가기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 갔어요.

초부: 어머니 아버지 찾거나 했으면 좋겠지만 찾지두 못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구, 거기밖에 될 게 없을 텐데 잘 생각해서 해라.

도념: 꼭 찾을 거예요. 내가 동냥 달라구 하니까 방문 열구 웬 부인이 쌀을 퍼 주며 나를 한참 바라보구 있더니 별안간 “도념아, 내 아들이, 이게 웬일이냐.” 하고 맨발바닥으로 뛰어 내려오던 꿈을 여러번 꾸었어요.

초부: 가려거든 빨리 가자. 펑펑 쏟아지기 전에. 이 길루 갈 테니?

도념: 비탈길루 가겠어요.

초부: 그럼 잘- 가라. 난 이 길루 가겠다.

도념: 네, 안녕히 가세요.

초부, 나무를 지고 내려간다.

도념, 두어 걸음 나갈 때 법당에서의 주지의 ㉕**독경 소리**. 발을

멈추고, 생각난 듯이 바람에서 표주박을 꺼내 잣을 한 움큼 담아서 산문 앞에 놓는다.

도념: (우릐를 꿇고) 스님, 이 잣은 다람쥐가 겨울에 먹으려구 등걸 구멍에다 와 둔 것을 제가 아침이면 몰래 꺼내 뒀었어요. 어머니 오시면 드리려구요. 동지선달 긴긴 밤 잠이 안 오시어 심심하실 때 깨우십시오. (산문에 절을 한 후) 스님, 안녕히 계십시오.

멀리 동리를 내려다보고 길-게 한숨을 쉰다.

정숙.

원내에서는 목탁과 주지의 ㉖**염불 소리**만 청정히 들릴 뿐.

눈은 점점 펑펑 내리기 시작한다.

도념, 산문을 돌아다보며 비탈길을 내려간다.

- 함세덕, 「동승」 -

*유식론: 범상종의 주요 경전으로, 인식의 과정을 명확히 하고 실천 수행의 다섯 계위를 밝힌 것임.

*야차: 불가에서 사천왕에 딸린 여덟 귀신 중 하나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친다는 사나운 귀신을 이르는 말.

*진애: 티끌과 먼지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세상의 속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쓰임.

*오탁: 불가에서 세상의 다섯 가지 더러움을 이르는 말.

*사바: 불가에서 괴로움이 많은 인간 세계를 이르는 말.

*바람: 승려가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

*깡매기: ‘깡과리’의 전라도 방언.

39.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지’는 ‘도념’의 어머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② ‘도념’은 관세음보살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 ③ ‘주지’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하는 ‘도념’의 태도에 공감하고 있다.
- ④ ‘초부’는 ‘도념’이 절을 떠나 돌아다니려는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
- ⑤ ‘도념’은 절을 떠나면서 잣을 꺼내 두어 ‘초부’가 평안히 지내 시기를 바란다.

40. ㉔~㉖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은 초부에게 애상적 정서를 느끼게 한다.
- ② ㉕은 도념으로 하여금 주지 스님을 생각나게 한다.
- ③ ㉖은 펑펑 내리기 시작하는 눈과 함께 도념이 절을 떠나려고 하는 장면을 구체화한다.
- ④ ㉔와 ㉖은 모두 속세와 떨어져 있는 절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⑤ ㉔~㉖은 모두 주지의 불교적 깨달음을 소리로 표현한 것이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동승」은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불교적 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불가(佛家)의 삶 사이에서 겪는 주인공의 갈등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또한 성장의 주체인 주인공이 어머니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게 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승」은 성장의 주체가 등장하면서 길 떠남의 모티프를 보여 주는 작품으로, 주인공인 '도념'은 불가의 삶 속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된다.

- ① 도념이 어머니를 만나는 꿈을 여러 번 꾀 것으로 보아, 어머니에 대한 도념의 그리움이 길을 떠나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도념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절을 떠나는 것으로 보아, 도념이 불가의 삶 속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주지 스님이 도념에게 부모의 죄를 언급하며 절에서 죄를 씻어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주지 스님은 불교적 교리를 들어 도념이 길을 떠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도념이 주지 스님에게 어머니는 무서운 죄를 지었을 리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 도념은 불가의 삶을 버리고 어머니를 찾아 나서게 될 것임을 알 수 있군.
- ⑤ 도념이 동네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절 밖의 동네는 최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라는 주지 스님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절에 있기 싫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도념은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군.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토니오의 눈에는 경기장 밖에 즐비하게 세워 놓은 자전거들이 한가득 클로즈업돼 들어온다. 아들 브루노에게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이르고는 자전거 한 대를 꾀싸게 훑쳐 달아나지만 곧 주인에게 붙잡힌다. 어디선가 경찰이 온다. 아들의 면전에서 봉변을 당하는 안토니오의 처지를 가련하게 여긴 자전거 주인이 선처를 베푸는 바람에 안토니오는 철창 신세를 면하고 풀려난다.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석양의 거리를 아들은 뒤따르고 안토니오는 어깨가 축 늘어진 허탈한 모습으로 하염없이 걸어간다.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난 무엇보다 외로움을 느꼈다.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당한 안토니오의 무너진 등이 견딜 수 없어 콧등이 시큰해졌고, 그보다는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목격해야 하는, 그럼

[A]으로써 평생 씻을 수 없는 내면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갈 어린 아들 브루노 때문에 나는 혀를 깨물어야 했다.

왜? 왜냐고? 그건…… 빌어먹을, 내가 바로 또 다른 브루노였으니깐. 이 망할 놈의 기억, 저 비디오 테이프를 찢어 버려야 하는 건데.

[중략 부분의 줄거리] 중풍으로 쓰러졌던 병력이 있던 나의 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한다. 이 가게는 유일한 수입원이며 생존 이유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도 각별하다. 나는 아버지의 잔심부름꾼으로 시장통 도매상을 종종 다녔는데, 어느 날 도매상에서 스무 병이 와야 할 술병이 열여덟 병만 왔음을 알게 된다. 도매상인 흑부리 영감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지만 흑부리 영감은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한 닷새쯤 지났을까, 아버지와 나는 다시 그 수도 상회로 물건을 떼러 갔다. 아버지는 또 고만고만한 물건들로 구색을 맞춰 골랐고 흑부리 영감은 일일이 헤아린 다음 우리 부자가 가져온 정부미 자루에 집어넣으라고 손짓을 했다. 아버지와 나는 허겁지겁 물건들을 자루에 휩쓸어 담았다. ◎평소와 달리 아버지의 손은 약간 떨려서 핫손질을 많이 해 일부러 나한테 뒤통질을 놓는 사람 같았다.

내가 그 이유를 모를 리가 있겠는가. 아버지는 그 흑부리 영감의 눈을 속여 미리 00 소주 두 병을 은밀히 자루에 더 넣어 두었던 것이다. 셈을 치르고 문턱을 가까스로 나서려는 순간, 이게 무슨 운명의 조화인가, 흑부리 영감이 우리를 불러 세우는 것이었다.

거 영감, 이보우다. 그 포대 좀 풀어 다시 한번 헤아려 봅세. 계산이래 안 맞아.

나는 그때 겁에 질린 송아지처럼 눈에 흰자위가 유난히 많아진 아버지의 눈동자를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인 내가 무슨 구세주라도 돼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눈으로 내 얼굴을 쳐다봤던 것 같았다. 그러나 난들 달리 뾰족한 수가 있을 턱이 없지 않은가.

결국 흑부리 영감은 두 병이 더 들어간 것을 밝혀냈고 아버지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나는 내가 희생양이 돼야 함을 느꼈다.

◎예, 맞아요. 그건 말예요. 제가 영감님 몰래 넣은 건데요……. 왜냐하면 접때 접때 우리 집에서 사실 두 병을 빠뜨리고 갔기 때문에 응, 뽀뽀이어서요…….

나는 이상하게도 많이 편하고 당당했다. 나도 모르게 입가로 번져 나온 미소를 단속하느라 손바닥으로 입을 몇 번인가 틀어막기도 했다. 흑부리 영감은 얼굴에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고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일단 직접적 책임을 모면한 아버지는 헤설픈 표정으로 날 쳐다볼 뿐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흑부리 영감이 당신과는 이제 거래 끝이야 하고 선언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얼굴이었다. 아버지처럼 이복출신인 그 영감은 시장통에서 신용 하나는 보증 수표나 다름 없었지만 성질이 불같고 매몰차기로 소문이 자자한 위인이었기에 그런 상황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었다.

내레 이까짓 걸루다 당신하고 거래를 끊지는 않갠어. 다 물정 모르는 아이들이 저지른 짓인데 으잉?

아유, 고맙습네다 영감님. 그저 어떻게 헤헤…… 우리 아이가 평소에는 그렇게 민한 애가 아닌데 어찌다…….

◎단…….

흑부리 영감이 아버지의 말끝을 가로챘다.

내 앞에서 저 아이를 호되게 가르치는 꼴을 뵈 주랴우. 내가 그깟 술 두 병이 아까워서 기러는 게 아니야. 하지만 기렇게 따끔하게 가르치는 건 바로 자식에게 말이야, 부모 된 도리를 다하는 것 아니갠슴매? 내 이 자리서 이녁이 하는 광냥을 두고 보고서리 까짓것 그 술 두 병은 거저라두 주갠어. 내 이제껏 남한테 콩알 반

또가리도 거저 준 적은 없지만서두, 이런 경우가 다르다우 아암.

㉠호되게라든…… 어떡케?

쯔쯔, 이녁도 함경도 아버지 출신이든 부랄값도 못하는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드러케 다루는지는 알 만하잖소? 그걸 왜 내게 묻소 응응? 아안 그럴소?

야! 간나야, 니 다시는 이런 민한 짓이래, 하겠니, 안 하겠니? 어서 말 좀 해보라우.

짐짓 호령을 하는 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며 허공 높이 허우적거렸다. 단 한 대에 내 뺨은 무섭게 부풀어 오르며 감각을 잃어 갔다.

길티…… 기계 바로 진짜 교육이야.

[B] 흑부리 영감의 격려를 받은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그에게 굶실거린 다음 또 한 차례 내 뺨을 기세 좋게 올려붙였다. 그러나 이 지독한 연극을 지켜보면서 나는 아픔을 거의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맑아지는 느낌뿐이었다. 그러곤 투시해 버리고 말았다.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의 눈 속에 흐르지도 못하고 껴어 있는 눈물을.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애비라는 존재는 되지 말자. 아마도 나는 그때 그런 끔찍한 다짐을 했는지도 모른다.

- 김소진, 「자전거 도둑」 -

42.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적 현실을 묘사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회상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행동 특성과 연결하고 있다.
- ④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다양한 인물의 내면을 전달하고 있다.
- ⑤ 시점의 변화를 통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43.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흑부리 영감은 계산이 치밀하고 빈틈이 없는 성격이다.
- ② 흑부리 영감과 그의 거래에서 아버지는 손해를 본 적이 있었다.
- ③ 아버지는 거짓말에 익숙하지 않은 순박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 ④ 아버지와 흑부리 영감은 같은 이북 출신으로 젊어서부터 막역한 사이이다.
- ⑤ 아버지는 구멍가게를 운영할 때 흑부리 영감의 도매상과 지속적인 거래를 원했다.

44. ㉠~㉤을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브루노에 대한 기억과 비디오 테이프가 앞에 놓인, 고통 받는 나의 얼굴 표정을 오버랩하면 좋겠군.
- ② ㉡: 아버지의 얼굴에서 식을 땀을 흘리는 장면과 떨리는 손을 클로즈업해서 번갈아 구성하면 되겠군.
- ③ ㉢: 나의 역할을 하는 배우에게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이면서도 당당한 말투로 연기하도록 요구해야겠군.
- ④ ㉣: 흑부리 영감의 대사 이후 약 3초 정도 영상의 모든 소리를 제거해 분위기를 반전시켜야겠군.
- ⑤ ㉤: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배우에게 어찌할 줄 모르는 표정과 자신 없는 말투로 연기하도록 요구해야겠군.

45. 윗글의 [A]와 [B]를 연결하여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의 '외로움'은 [B]의 '끔찍한 다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군.
- ② [A]에서 '권위를 깡그리 무시당한 안토니오'의 모습은 [B]에서 '굶실거린' 아버지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아.
- ③ [A]에서 '콧등이 시큰해'진 것은 [B]의 '격려'가 고마웠기 때문이겠지.
- ④ [A]의 '아버지의 뒷모습'은 [B]의 '눈물'과 의미상 통하겠지.
- ⑤ [A]의 '내면의 상처'는 [B]의 '지독한 연극'에서 비롯된 것이겠지.

★제4차 총만국 실모 정답

- 1.① 2.④ 3.③ 4.① 5.④ 6.④ 7.⑤ 8.⑤ 9.② 10.③ 11.② 12.③
13.② 14.⑤ 15.① 16.① 17.⑤ 18.② 19.④ 20.③ 21.③ 22.⑤ 23.
⑤ 24.② 25.④ 26.② 27.① 28.③ 29.① 30.② 31.① 32.② 33.②
34.③ 35.① 36.③ 37.⑤ 38.④ 39.④ 40.⑤ 41.⑤ 42.② 43.④ 44.
① 45.③